

# 세계 호남향우회 “고향 발전위해 힘 모을 것”

세계 19개국 53개 지역 호남향우회 지도자 320여 명이 '세계호남인의 날'을 맞아 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고향 전남을 방문해 친교행사를 갖는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운(미국 뉴욕) 세계호남향우회연합회장은 4일 열리는 '제7회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식을 위해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 중남미 지역 등 19개국 53개 지역 320여 명의 호남향우회 지도자를 이끌고 3일부터 5일까지 3일 일정으로 고향을 방문했다.

세계호남향우회 지도자들은 방문 첫 날인 3일 전북 익산의 백제문화유적지와 동학농민운동 격전지인 정읍 황토현전적지를 방문하고 전남 서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신안 천사대교를 둘러봤다. 이어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친교 만찬행사를 열어 세계호남향우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운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미국 뉴욕)은 “호남인은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고향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먼 이국에서도 호남인의 긍지를 지키며 고향 발전을 위해 늘 애써준 김영운 회장을 비롯한 향우들께 200만 도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전남이 새로운 새천년 비전으로 정



3일 전남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세계호남향우회원을 대상으로 열린 전남투자설명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계호남인의 날’ 맞아 19개국 53개 지역 지도자 전남 찾아 역사유적지 방문·만찬행사·장학금 지급 등 화합·단결 도모

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설정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세계 각지의 향우들께서 호남인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호남향우회 지도자들은 고향 방문 둘째 날인 4일 목포에서 ‘2019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3년 만에 다

범 학생 42명에게 장학금 4200만 원도 전달한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학생들이 호남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성장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매년 ‘고향사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향 방문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함께 관람하고 광주 5·18민주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고향방문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01@

# 경기 북부 돼지열병 빠르게 확산

파주·김포 확진 ‘총 13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첫 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차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 농가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 건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김포시 통진읍에서는 앞서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발생했다.

앞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의심 사례도 이날 새벽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판명돼 지금까지 국내 확진 사례는 총 13건으로 늘어났다.

김포 통진읍 농장은 농장주가 비육돈 4마리가 폐사한 것을 보고 김포시에 신고하면서 의심 사례가 알려졌다. 이 농장

에서는 2800여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고, 반경 3km 내에는 이곳을 포함해 총 9곳에서 2만4515마리가 있다.

파주 문산읍 돼지 농가 농장주는 어미 돼지 4마리가 식육 부진 증상을 보여 파주시에 신고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300여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반경 3km 내 다른 농장은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총 4건이 추가됐다.

방역 당국은 정밀검사 소요 시간을 줄이고자 소방청 헬기를 이용해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혈액 샘플을 옮기고 있지만, 이번에는 태풍 ‘미타’의 복상으로 헬기를 띄우지 못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5일 스톡홀름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예상

‘돌파구-위기’ 분수령...美 ‘포괄적’-北 ‘단계적’ 합의 모색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협상을 재개한다.

북미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그 무대는 스웨덴 스톡홀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톡홀름은 지난 1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남북미 북핵 수석대표 간 ‘합속 답판’을 벌였던 곳이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 대사는 3일 오후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스톡홀름행 항공편 탑승객 명단에 이름이 확인됐다. 미국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조만간 스톡홀름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접촉에 누가 나설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건 대표와 김명길 대사가 상견례를 겸해 직접 예비접촉에 나올 수도 있지만, 차석대표급 인사가 나와 실무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담 방식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더 무게가 실린다. 실무협상은 현재로서는 5일 하루로 잡혔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김명길 대사는 돌아가는 항공편은 아직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

상회담 결렬의 충격을 딛고 비핵화 협상에 다시 돌파구가 열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좌초 위기에 직면하느냐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된다면 연내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과 미국 어디에서도 비핵화 접근 방식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가시적 징후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왔다.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계산법’이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합의해 이행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안보리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했지만, 미국이 ‘영변+α’를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가 무엇인지 협상의 목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北 발사체는 신형 SLBM ‘북극성-3형’

방위력 과시·美 압박...김정은, ‘축하’ 만 보내고 불참한 듯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그 존재를 공개한 ‘북극성-3형’을 실제 시험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 국면에서 신형무기 공개를 통해 방위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새형의 탄도탄 시험발사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 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보되었으며,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진행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7시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km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km,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됐다. 북한이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직접 공개함에 따라 정상 각도 발사시 비행거리는 더욱 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17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미사일 구조도를 노출한 바 있다. 이후 2년여 만에 실제 시험발사에 성공한 셈이다. 북극성-3형은 북한이 2016년 8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기존 SLBM인 ‘북극성-1형’과 2017년 2월 이를 지상발사용으로 개조해 발사한 ‘북극성-2형’ 보다 사거리 등 기술력이 한층 향상됐을 것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지난 2일 오전 조선동해 원산만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3일 보도했다.

추정된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 현장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현장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한 당 및 국방과학 연구부관 간부들은 성공적인 시험발사 결과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연구 단위들에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었다”고 언급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무기 시험발사의 경우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지만,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신형 무기 시험 현장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며, 오는 4~5일 시작될 미국과의 예비접촉 및 실무협상 등 비핵화 대화가 중요 국면에 있는 점을 고려해 대미 자국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h2 style="margin: 0;">투자</h2> <h3 style="margin: 0;">7억원, 2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금매물 · 경매물건</li> <li>● 기간 - 2년 이내</li> <li>● 수익 - 연 24% 이상 가능</li> </ul> <p style="font-size: small;">법적보장.010-3605-5000</p>
--	---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주택·아파트**

- 아파트 일산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적합 1억2백
- 광주대학 부근 금호아파트 12층 151㎡ 울리모텔링 은행 1억6800 매도 2억5500

**투자·매도·교환**

- 전원주택지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2100만원
- 임대 계림동 이마트 부근 2층 88평 3층 86평 복층 사용 가능 2천에 230
-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원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점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청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남) 8232㎡ 주위조경총용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시설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훌륭 1억3천

**상가건물**

- 유동 NC백화점 부근 상업지 3306㎡ 신축 적합 건물에서 월 170수입 교환원 6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원
- 서구 치명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동구 산수동57리 대로점 주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곡성군 목서동면 계획관리지역 234044㎡ 다용도·법인이전 10억6천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신도시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층 은행 등 2억 구매 3억6천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중층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옆문앞

## 부안곰소 토지매매

###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